

현

협회동정



▲6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산망기술 규칙(안)」 공청회에서 한국전산원 宋官浩연구원이 조문설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7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위원회 회의 광경.



◀통신기본교육 교육생들이 KTA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교육생들.

「電算網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한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6월 22일 하오 2시에 개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60여명의 업계 및 관련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공청회에서는 체신부 정보통신과 金治東 課長이 제안설명을 했으며, 한국전산원 宋官浩 선임연구원이 조문설명을 했다.

이어서 있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시의 방법과 기간, 불요전자파 조문의 철회요청, 인증시험기관의 선정 등에 대한 참가자의 질문과 관계기관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이번에 나온 수정안은 2년간에 걸친 산·학·연·관의 작업끝에 나온 것인데, 업계측에서는 업계의 의견이 많이 수렴된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15면)

법제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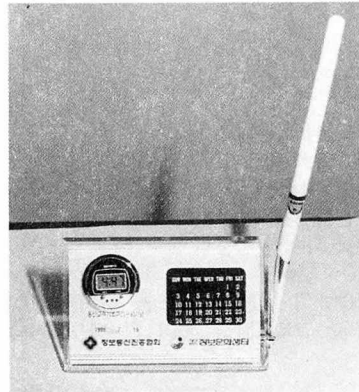
체신부가 전기통신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협회안을 작성키 위한 법제 위원회가 7월 1일 협회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법제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5~6월 협회가 조사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협회안작성 작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7월 11일~12일 양일간에 걸쳐 공동작업에 들어갔다.

협회는 1박 2일 동안 법제위원들이 작성한 협회안을 지난달 말에 체신부에 건의했다.

통신기본교육 실시

통신업무관련 실무자들의 기초이론및 실무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협회가 개설한 통신기본교육이 지난달 4일부터 10일간 정보문화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되었다.



▲교육생에 증정된 기념품

이번 교육의 주요 교육과목은 ▲전기통신의 개론 ▲전송이론 ▲통신장비 ▲데이터통신의 기초 ▲새로운 통신 ▲비디오 상영 ▲DACOM PLAZA·KTA 전시관 견학. 이번 교육의 강사진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선우종성 박사와 조유제 박사 그리고 대유공전의 이강호 교수, 이두석 교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등록실무해설 발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등록실무 등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등록실무 해설」이 발간되었다.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한 이 해설집에는 법해석을 비롯하여 등록관리, 등록절차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관련법규 등록서식 등이 첨부되었다.

총 1백 70면, 신크라운판으로 제작된 이 해설집은 회원사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국제협력 본격 추진

국제협력위원회가 지난달 5일 협회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려, 국제교류를 위한 본격적인 토의가 있었다.

현재 협회는 일본정보통신진흥협회(JICOA)와 상호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 미국 정보산업협회(IAA)·국제컴퓨터통신위원회(ICCC)와도 관계정립을 준비하고 있다. ♣